

# 방산株, 트럼프 피격사건에 신고가 경신... 배터리株는 '흔들'

LIG넥스원 3.35%, 현대로템 7.51% ↑  
전쟁 지속·트럼프 지지율 상승 영향  
LG엔솔 3.89%, 삼성SDI 0.66% ↓  
트럼프 "바이든 연비규제 폐지" 공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의 여파가 한국 방산주와 배터리주에 영향을 미쳤다. 방산주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며 상승세였지만, 배터리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의 주가는 전장 대비 3.35% 상승한 23만3500원에, 현대로템의 주가는 7.51% 상승한 4만2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밖에도 한화시스템(5.6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54%), 한국항공우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암살 시도 충격을 당한 직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뉴시스

(0.71%) 등 국내 주요 방산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 서에서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지원 축소를 주장하

고,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자체적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위비 증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외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과 방산·우주 종목의 강세를 예상했다.

## 밸류업 정책 본격화에 예탁금 4兆 급증

코스피 2900선 다가서자 투심 자극  
밸류업 기대감... 개인투자자 복귀  
野, 금투세·종부세 완화 시사 영향도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이탈과 함께 감소세를 보였던 투자자예탁금이 5거래일 만에 급증하면서 코스피 상승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도 상반기동안 순매도 태도를 유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7조2311억원으로 일주일 전(53조449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투자자예탁금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1일부터 4일까지 4거래일만에 약 5조원이 증발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동일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1조1560억원을 순매도했다. 5일부터 11일까지도 3조1218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순매도세를 지속했으나 12일에는 4550억원을 순매수했다. 8거래일만에 순매수세

로 돌아온 것이다.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2900까지 바짝 다가서자 투심이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부터 잠시 주춤했던 코스피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 11일 코스피는 2891.35를 기록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발표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시장이 요구하던 밸류업 세제지원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성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낫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한국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기업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밸류업 관련 정책,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입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며 올해 상반기

에만 약 22조9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달에도 12일까지 3조9560억원을 사들이면서 순매수세를 유지하는 등 개인투자자들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밸류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복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점도 개인 투자자 투심 자극에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긴 돈으로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투자 열기의 가능자라도 활용되는 만큼,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피력해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가 완화됐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를 이유로 금투세 유예를 반대해 왔는데, 이러한 기조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12개 종목 선정

KB증권, 리서치 보고서 통해  
정부 정책 수혜 가능 종목 제시

KB증권은 저평가 대형 우량주의 가치 상승 전망을 기반으로 'KB Again BUY KOREA(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관련 12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에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을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 외국인 유입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증권 리서치본부는 지난 12일 'KB전략, 바이코리아 귀환: A gain BUY KOREA' 제목의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수혜가 가능한 'KB Again BUY KOREA' 종목 12선을 제시하고 투자 가이드를 제공했다. 해당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

스,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기아, 삼성물산, GS, KT, 삼성화재, 키움증권 등이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과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에게서 한국 증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관찰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이 가시화될 때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는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를 기존 24만7000원에서 28만원으로, LIG넥스원의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이동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 지속으로 포탄, 유도 무기 소진으로 인한 소요, K9자주포와 같은 범용 무기 각광, 전차, 군용기 등은 시차를 두고 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방산업체의 실적이 호조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내 대표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배터리주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로 언급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3.89% 하락한 35만8500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SDI의 주가는 37만7500원으로 전일 대비 0.66% 떨어졌

으며, 포스코퓨처엠도 전일 대비 1.65% 하락한 26만8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의 재임 기간 내 전기차 판매는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과거 트럼프 1기 때 연비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2년간이나 역성장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 시 첫 해에 바이든의 연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기존의 194만2000대에서 177만7000대로 하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피격 사건 이후 급상승했다. 각종 이벤트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 베팅사이트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은 70%로 전날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바이든 대통령 승리 확률은 16%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베트남법인(KIMVN)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손잡고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 한투운용,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 진출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맞손'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 위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베트남법인(KIMVN)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손잡고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베트남에서 변액보험 상품을 위탁운용하는 것은 KIMVN이 최초다.

KIMVN은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의 위탁운용사로서 이날 변액보험 신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3일 KIMVN은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의 주요 투자처는 고배당·성장주식형 펀드다. 편입 펀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유동성이 우수하고, 배당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며 성장성이 높은 '중대형주'에 투자한다.

이번 출시를 통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기존 주식형 변액보험 상품에 이은 두 번째 상품을 선보인다. 신규 상품을 시작으로 KIMVN과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한화생명 변액보험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 유안타증권, 올해 상반기 1.4兆 펀드 판매

출범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성과

유안타증권이 상반기 펀드 판매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상반기 지점 소매 영업을 통해 총 1조4584억원의 펀드를 판매(MMF 제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0월 유안타증권 출범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성과다.

특히 상반기에만 7700억원의 공모주펀드를 판매해 누적 잔고 약 1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초단기 채권형펀드도 4400억원가량 판매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와 함께 다양한 전략을 가미한 '공모주

+알파전략'의 공모주펀드를 엄선해 적극 제공하고, 탄탄한 리테일 고객층을 보유한 영업점 PB들의 노하우에 힘입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뤼즈핑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국내 펀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값지다"며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와 고객 수요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 공모주까지 투자 라인업을 확대하고, 해외 대체자산군 등의 공급도 강화하는 등 유안타증권만의 차별화한 상품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으로써 고객 자산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